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태장만다라, 〈지명원〉



지명원은 태장만다라 12대원의 제5원으로서 5존으로 이루어 져있으며 중대팔엽원의 서쪽에 위치한다. 밀교에서는 중생을 제도하려면 대일여래가 보살이나 명왕으로 변화하여 구제한다고 한다. 여기서 대일여래자체를 말할 때는 자성륜신(自性輪身)이라 하고, 반야보살처럼 보살로 변화했을 때는 정법륜신(正法輪身)이라 하며, 부동명왕의 분노하는 모습으로는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을 위해 진노하는 모습을 띠고 교화하는 것을 교령륜신(敎令輪身)이라 하는데 교령륜신으로서 제도하는 대상은 대자재천왕과 같은 교화가 어려운 중생이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⑧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정상석 시인

손가락 시인과 그의 파랑새, 부처님

누군가 행복이 뭐냐고, 슬픔이 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 답을 할까? 당신의 파랑새는 무엇이며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나의 파랑새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을 해주어야 할까? 흔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처럼 답이 머뭇거려지는 질문은 없을 것이다.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정상석 시인에게 시는 행복이며 슬픔이다. 그리고 그에게 파랑새는 부처님이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 헤매야 하는 파랑새가 아니라 그의 눈길이 닿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날아드는 삶 안의 파랑새이다.

정 시인은 2017년 부처님오신날에 불자 대상을 받은 신심 깊은 불자다. 불교텔레비전을 통해 날마다 예불을 보는 것은 물론 어머니와 함께 꾸준한 신행생활을 해오고 있다.

손가락 시인으로 불리는 정 시인은 선천성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으로 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하고, TV광고를 보면서 혼자 한글을 깨우쳤다. 그러나 경직된 팔과 손가락을 움직여 힘겹게 컴퓨터 자판과 사투를 벌이듯 써가는 시 속에는 세상을 향한 희망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 가득 담겨 있다.

옆으로 누워 자판 하나를 치려면 온몸이 경직되고 땀범벅이 되지만 자판의 자음과 모음이 단어가 되고 단어와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어 한 편의 시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시들을 모아 2003년 첫 시집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을 출간하게 되었고 8년 만인 2010년 두 번째 시집 〈아침 강가에서〉를 출간했다. 1000여 편의 시에서 고른 이 시들은 자신의 기쁨보다도 더 많은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맘이 컸다.

근래에는 보리수아래의 아시아장애인 공동시집에 참여하여 미얀마, 베트남 등 아시아 불교국가 장애인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 시가 노래로 만들어져 불리고 있다.

정 시인 곁에는 관세음보살 같은 어머니가 늘 그림자처럼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정 시인을 집에 홀로 둔 채 일을 나가야 했던 어머니 김종갑(여법성) 씨는 혼자 집에 있는 아들이 시를 쓰는 일과 소일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2000년 정 시인에게 중고컴퓨터를 마련해 주었었다.

어머니는 컴퓨터를 마련해 준 지 얼마 안 되었던 때 있었던 일화를 눈물 글썽이며 들려주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당 일을 마치고 자정이 넘어 서둘러 돌아왔더니 "어어어엄마...어어엄마..." 숨이 넘어갈 듯 자신을 찾는 정 시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방문을 여니 컴퓨터 앞에 엎드린 정 시인이 모니터에 '엄마 사랑해'라는 글을



정상석 시인(아래)과 그의 어머니.

써놓고 환히 웃고 있었다고 한다. '니가 쓴 거니 정말?' 하면서 다시 써보라고 했더니 끙끙거리면서 얼마나 힘들게 자판을 치는지, 미안하고 고마워서 아들을 껴안고 한참 울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다.

넉넉지 않은 집에서 중증장애자녀를 키우기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장애자녀를 두고 직장을 다닐 수 없어 어려운 형편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다. 중증장애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일을 나가야만 했으니 정 시인의 '엄마 사랑해' 문구는 어머니로 하여금 만감이 교차하게 했을 것이다.

정 시인은 사이버장애인자립생활 인터넷 카페 `푸른내일' 운영자와 강원도장애인복지관 홀로서기 프로그램의 리더로도 활동했다.

나는 2010년 내가 기획홍보팀장으로 있었던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정 시인을 추천했고, 그 때 정 시인은 제28회 오뚜기축제에서 표창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정 시인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극복대상, 춘천시민상을 수상했다.

2011년 1월, 가정 시인은 홀로서기를 했다. 40년 동안 곁에서 손발이 되어준 어머니의 품을 떠나, 혼자만의 보금자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어머니를 위한 결정이기도 했다. 한사코 말리는 어머니 만류에도 독립을 하고보니 어머니가 병원도 맘 편히 가시고 일상이 편해지신 것 같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장애인활동지원사 중에는 불자가 적어 아쉽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 최중중장애로 인해 집에서 불교계 방송과 유튜브, SNS를 통해 신행생활을 하는 정 시인의 일상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사가 불자였으면 하는 바람이 여러 번 들었다. 보리수아래 중증장애인들도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은데 실제 불자이신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연결이 된 예도 몇 명이 있다.

몇 년전 근로기준법이 바뀐 뒤 정 시인과 같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의 연결이 어려워져서 삶이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 특히 주말에는 연결이 더욱 어려워진 정 시인은 걱정이 크다. 보건복지부 등에 민원을 넣어보았지만 회답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한다. 정 시인은 일상생활과 시 작품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일흔 중반의 어머니가 주말에는 다시 자신을 돌보아야 하니 어머니의 건강과 생활을 걱정하는 마음에 안절부절이다. 그 사실을 나 역시 잘 알고 있는 터라 걱정의 안부만 묻게 되니 더 안타까울 뿐이다.

최중증장애를 갖고 혼자 사는 삶에 힘든 점이 어찌 한두 개 뿐일까. 말도 못하게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삶의 환경은 어려워지고 건강도 날로 안 좋아지지만 1971년생 정상석 시인은 영원한 파랑새 부처님을 의지하며 산다.

정 시인은 말한다. 어렵고 힘들 때는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기에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신을 잘 다루라'는 〈법구경〉 말씀으로 세상를 향해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곤 한다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있는 장애인 주간을 보내면서 정상석 시인을 통해 장애인의 삶, 불교 속의 장애인, 그들의 신행 생활과 포교에 대해 돌아보는 한 주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지구환경도 살리고 살림비용도 절감하는

em 친환경세제 EM 선물세트

EM이란? Effective Micro-organisms(유용 미생물군)의 약자. 일본 류큐 대학의 히가테루오 교수가 개발했으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 세균 등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 배양한 것.

기대 이상의 세척력 우리에게 유익한 미생물로 이뤄진 EM원액(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 미생물군)을 발효시키면 환경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친환경 세제

종합 사각선물 A 세트



● EM발효 덴탈케어 플러스 ● EM발효 안심주방세제 ● EM고농축 세탁세제 ● EM비누세트(미네랄비누, 쪽비누, 두발&바디워시 비누) ● 스킨비바(미용비누) ● EM주방비누 ● EM세탁비누 / 49,000원

종합 사각선물 B 세트



● EM발효 덴탈케어 플러스 ● EM발효 안심주방세제 ● EM고농축 세탁세제 ● EM비누세트(미네랄비누, 쪽비누, 두발&바디워시 비누) ● 스킨비바(미용비누) ● EM주방비누 ● EM세탁비누 ● EM쌀뜨물 발효액 / 40,000원

EM스마트 발효기



EM(유용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쌀뜨물을 계절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효할 수 있습니다. 200L 발효기(48만원) /120L발효기(40만원) / 30L발효기(32만원) ＊부가세별도



EM원액 : 1박스(1L×15EA) 120,000원

판매처 : 마하몰 02-732-1520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